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출제문제 해설 포함) □

인문 1

1. 출제의도

우리 사회가 꿈꾸는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교육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려 깊고 통찰력이 돋보이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얼마나 정치(精緻)하고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

2. 문항 해설

① <보기>에 나타난 살베르그의 교육관의 핵심

▶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은 평등한 삶이다.

▶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서열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각자 추구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평등 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적게 가르쳐야, 적게 평가해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 지식의 양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창의력을 방해할 수 있다.
- 교육은 교조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노력을 도와주는 것이다.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 동기부여를 통해 창의력을 이끌어내야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 학생들 스스로가 무엇을 할지 보다 많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제시문 [가]

핵심 : 잠정적 진리에 대해 답을 얻는 과정을 강조한 지문.

[가]는 아직 해법을 얻지 못한 ‘잠정적 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한 글이다. 이 글의 저자는 지성을 지식습득과 달리 “나 자신을 시간의 흐름 속에 놓고 나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잠정적 진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학습동기가 주어졌다는 것**의 의미이며 이를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해결능력을 단련**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것은 ‘추격 교육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능적 혹은 도식적 문제해결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방법이다. 시간을 들여 **능동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사고행위는 그런 점에서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③ 제시문 [나]

핵심: 기술과 행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교육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할 것을 강조한 지문.

사람들은 통상 교육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문제로 치부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실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아이는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학습과정 자체가 곧 실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는 과정에 대한 이 같은 가치부여는 평가중심(결과중심)에 치우친 **교육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주입식교육을 해왔던 교육자의 태도 혹은 무조건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식의 교육관을 가진 교육자를 **지식전달자에서 ‘조력자’**

로 변화시킬 수 있다.

④ 제시문 [다]

핵심: 학생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개별 상황(가족)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지문.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관심과 **평등 교육의 역동적 관계성**을 교육자의 역할과 연동하여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교육은 한 인간을 (가족으로 대표되는) 그를 낳은 고유한 전통 및 환경과 분리시켜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진 사회성원으로 끼워내는 기능적인 과정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육자에게는 자신이 개혁자가 아니라 조력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자의 태도는 학생 각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방향을 추구**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평가기준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가산점 적용
	등급 구간 내의 차이는 논리전개의 치밀성 정도	
1~2	<p style="text-align: center;">■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p> <p>① 살베르그의 교육관의 핵심을 정확히 집어내어 유기적으로 깔끔하게 요약함.</p> <p>② 살베르그의 교육관을 보충 설명해줄 단서를 제시문 [가], [나], [다]에서 각각 2개 이상 도출함.</p> <p>③ 제시문에서 도출한 내용들 사이에 유기적 연관성이 있음.</p> <p>④ 어휘선택과 문장구사가 정확하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움.</p>	* 문장구사가 남달리 유려하여 다시 읽어 보 고은 생각이 들 경우.
3~4	<p>* 1~2등급 평가 요건에 대한 충족도가 전반적으로 다소 부족함.</p> <p style="text-align: center;">혹은</p> <p>* 1~2등급 평가 요건 중 2개의 요건에 대한 충족도가 평균 이하임.</p> <p style="text-align: center;">혹은</p> <p>* 살베르그의 교육관과 제시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논리적인 열개를 짜지 않고 단순한 요약에 그침.</p>	
5~6	* <보기>와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해당 없음
7~8	<p>* 질문의 의도는 파악했으나 논의전개가 전반적으로 난삽하여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p> <p>* 글의 분량이 현저하게 적음.</p>	
9	* 내용이 질문과 거의 무관함.	

* 이해 및 분석력 (30%) / 통합적 사고력 (40%) / 구성 및 표현력 (20%) / 창의력 및 독창성 (10%)

4. 예시 답안

<보기>에 서술된 살베르그의 교육관은 ‘더 나은 평등한 삶’을 만드는 것에 그 최종 목표를 둔다. 그가 말하는 평등한 교육이란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서열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각자 추구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살베르그의 ‘평등’의 의미는 평가중심 혹은 결과중심적 교육 방식과 대조된다. 예를 들어 ‘학습과정 자체가 곧 실행하는 것’임을 요지로 한 제시문 [나]의 내용이 이에 부합된다. 배우는 과정에 대한 이 같은 가치부여는 평가중심에 치우친 교육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살베르그는 그의 교육 실천을 위한 세부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강조한다. 첫째는 적게 가르치고 적게 평가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

다는 점, 둘째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 셋째는 학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살베르그가 평등교육의 실천을 위해 강조한 ‘창의적 사고’의 유도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제시문 [가]의 요점이라 할 수 있는 ‘잠정적 진리’ 해결 과정을 통해 보충될 수 있다. [가]는 아직 해법을 얻지 못한 ‘잠정적 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한 글이다. 시간을 들여 능동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사고행위는 그 자체로 창의성을 수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잠정적 진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학습동기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해결능력을 단련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것은 ‘추격 교육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능적 혹은 도식적 문제해결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는 무조건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식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 제시문 [다]에서처럼 해당 학생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을 인정하는 조력자의 태도를 겸비할 필요가 있다.

5. 출전 및 교과서 연관성

가. 관련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신형민 외 5인	비상교육	2014	211~217	<보기>	○
사회문화	박선웅 외 5인	금성출판사	2014	41~44	제시문[가]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11인	미래엔	2014	168~173	제시문[가]	○
사회문화	박선웅 외 5인	금성출판사	2014	192~195	제시문[나]	○
사회	박윤진 외 5인	지학사	2014	61~63	제시문[다]	○

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많이 가르치면 학생들 창의력 방해	기사	경향신문	2016.9.26		보기	○
하류지향	우치다 타치루/권루시안 옮김	민들레	2013	155~156	제시문[가]	○
<i>Instead of Education</i>	John Holt/출제진 옮김	<i>Sentient Publications</i>	2003	14~15	제시문[나]	○
가족세우기를 통한 교실 혁명	프랑케-그리쉬 슝 / 폴라 옮김	산티	2011	43~44	제시문[다]	○

인문 2

1. 출제의도

가족계획정책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공학과 민중적 생활세계의 지혜를 대비시킴으로써, 사회적 현상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끌어내어 보고자 했다.

2. 문항 해설

가. 제시문 [가]는 1960년대부터 한국의 국가 주도 산아제한운동을 겪은 한 여성이 개인적인 경험을 구술한 내용이다.

- 서구의 개인주의 전통에서는 사적인 문제, 즉 개인의 자율성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 출산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나라가 아이 낳는 일을 어떻게 일일이 간섭할 수 있겠어?).
- 한 개인으로서 국가 주도 가족계획에 호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국가의 지속적인 홍보와 당시 경제상황(먹고 사는게 큰 일이었고...)으로 인해 점차 수긍하게 되었다.
- 그러나 2004년부터 다시 시작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국가 시책이 180도 전환되면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그런데 요즘은 또 많이 낳으라고 하니까 뭐가 뭐지 모르겠어...).

나. 제시문 [나]의 핵심은 인구의 증가/감소 문제가 거대한 '인구학적 이행'의 흐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국가 주도 혹은 위로부터의 출산통제라는 기제만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인구학적 이행은 단순히 의학의 진보, 개선된 식단, 산업화와 종교, 이데올로기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서로 다른 장소, 시간, 환경에서 벌어진 인구감소의 원인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제는 없다.
- 1880년대와 1930년대 유럽의 인구 감소는 민중혁명의 경험으로 획득된 개인의 주인의식에 기반한 개인의 결정이었다. 즉 자의식적인 근대 문화의 일부로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는 밑으로부터의 출산 통제라 할 수 있다.
- 1970년대 이후로 나타난 제3세계 지역의 출산율 감소는 국가 주도의 통제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국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라는 인식이 변화를 이끌어낸 측면이 크다.

다. 제시문 [다]는 국가가 사회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근대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가져온 효과를 하이모더니즘과 메티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에 행정적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하이모더니즘적인 근대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 하이모더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담겨진 인간과 자연 통제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통해 국가는 인간의 정주와 모든 형태의 생산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 '지역성과 현장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메티스)는 하이모더니즘적인 국가의 사회공학적 설계(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으로 무시되거나 파괴되었다.

3. 평가기준

가. 평가포인트

- 1) 국가주도 가족계획의 성격을 제시문 [가], [나], [다]를 통해 정확히 독해하여 파악하고 있는가의 여부.
- 2)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모두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주도 가족계획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설득력있게 전개하는지의 여부.

나. 평가기준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각 등급 구간 내 등급 창의 구분점은 문장의 유려함 여부				
	<p>*①, ②, ③ 요소는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으로 가족계획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공통 평가기준임.</p> <p>① 제시문 [가]에서 구술된 개인적 경험이 제시문[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가주도 사회공학설계의 일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파악할 것.</p> <p>② 인구학적 이행은 위로부터의 통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근대문화의 일부로서의 가족계획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제시문 [나]에 근거해 파악해야함.</p> <p>③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정책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이모더니즘의 성격(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에 행정적 질서를 부여)을 파악하고 ‘개인들의 현장성있고 지역성이 있는 경험’의 영역일 수 있는 가족계획의 영역이 메티스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해야함.</p>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주도 가족계획 옹호의 논리</th> <th>국가 주도 가족계획 반대의 논리</th> </tr> </thead> <tbody> <tr> <td> <p>①제시문 [가]에서 나타는 산아제한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배경(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 또는 높은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어구에서 나타나는 높은 인구밀도)을 지적하고</p> <p>②하이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국가 주도 사회공학의 제도적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일련의 고착된 관행은 효율적일 수 있다)을 활용,</p> <p>③가족계획이 그 당시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경제성장(산업화, 근대화)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p> <p>④제시문 [나]에서 드러나듯이 인구억제의 효과도 있었음을 지적.</p> </td> <td> <p>①제시문 [가]에서 나타나는 정책전환으로 인한 개인의 혼란이 국가 주도 가족계획의 인위적 성격에서 나타난 한 결과임을 지적.</p> <p>②‘개인의 결정’ 혹은 ‘개인들의 현장성있고 지역성이 있는 경험’의 영역일 수 있는 가족계획의 영역이 메티스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하이모더니즘의 일환인 국가주도 가족계획이 이를 대체/말살/무시했음을 근거로 제시.</p> <p>③제시문 [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구학적 이행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닌 근대문화의 일부로서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부적절함을 지적.</p> </td> </tr> </tbody> </table>	국가주도 가족계획 옹호의 논리	국가 주도 가족계획 반대의 논리	<p>①제시문 [가]에서 나타는 산아제한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배경(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 또는 높은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어구에서 나타나는 높은 인구밀도)을 지적하고</p> <p>②하이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국가 주도 사회공학의 제도적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일련의 고착된 관행은 효율적일 수 있다)을 활용,</p> <p>③가족계획이 그 당시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경제성장(산업화, 근대화)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p> <p>④제시문 [나]에서 드러나듯이 인구억제의 효과도 있었음을 지적.</p>	<p>①제시문 [가]에서 나타나는 정책전환으로 인한 개인의 혼란이 국가 주도 가족계획의 인위적 성격에서 나타난 한 결과임을 지적.</p> <p>②‘개인의 결정’ 혹은 ‘개인들의 현장성있고 지역성이 있는 경험’의 영역일 수 있는 가족계획의 영역이 메티스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하이모더니즘의 일환인 국가주도 가족계획이 이를 대체/말살/무시했음을 근거로 제시.</p> <p>③제시문 [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구학적 이행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닌 근대문화의 일부로서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부적절함을 지적.</p>
국가주도 가족계획 옹호의 논리	국가 주도 가족계획 반대의 논리				
<p>①제시문 [가]에서 나타는 산아제한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배경(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 또는 높은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어구에서 나타나는 높은 인구밀도)을 지적하고</p> <p>②하이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국가 주도 사회공학의 제도적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일련의 고착된 관행은 효율적일 수 있다)을 활용,</p> <p>③가족계획이 그 당시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경제성장(산업화, 근대화)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p> <p>④제시문 [나]에서 드러나듯이 인구억제의 효과도 있었음을 지적.</p>	<p>①제시문 [가]에서 나타나는 정책전환으로 인한 개인의 혼란이 국가 주도 가족계획의 인위적 성격에서 나타난 한 결과임을 지적.</p> <p>②‘개인의 결정’ 혹은 ‘개인들의 현장성있고 지역성이 있는 경험’의 영역일 수 있는 가족계획의 영역이 메티스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하이모더니즘의 일환인 국가주도 가족계획이 이를 대체/말살/무시했음을 근거로 제시.</p> <p>③제시문 [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구학적 이행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닌 근대문화의 일부로서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부적절함을 지적.</p>				
2	* 위의 평가 기준 ①, ②, ③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분석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3~4	* 평가기준 ①, ②, ③ 중 두 가지 정도만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				
5~6	* 평가기준 ①, ②, ③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 이 내용들 중 하나만을 활용한 경우.				
7~8	* 질문의 의도는 파악했으나 논의전개가 전반적으로 난삽하여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9	* 질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쓴 경우.				

▶이해 및 분석력(50%), 통합적 사고력(20%), 구성 및 표현력(20%), 창의력 및 독창성(10%)

4. 예시 답안

한국 정부가 실시한 가족계획은 하이모더니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가 주도로 진행된 사회공학설계의 일환으로, 제시문 (가)의 구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가 개인의 삶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한 사례이다. 특히 (나) 지문의 저자가 지적하듯 지역성과 현장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영역, 즉 메티스가 존중되어야 할 가족계획이라는 영역에 하이모더니즘의 사회공학적 설계(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가 깊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주도 가족계획사업은 분명 제시문 (다)에서 같이 사회에 대한 국가의 이해를 높이고 인구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안정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드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먹고 사는게 힘들었다는 구술자의 증언은 당시 국가가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사회공학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시문 (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구학적 이행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주도의 위로부터의 통제로 진행되기 보다는 근대문화의 일부로서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의식변화, 즉 밑으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근대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가족계획이라는 영역이 제시문 (다)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공학적 설계, 즉 하이모더니즘 이데올로기로 설계, 통제되었다는 것은 ‘반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시문 (가)의 구술자가 증언한대로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책의 방향의 급선회로 인한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계획은 국가 주도 일변도가 아닌, 메티스를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다.

5. 출전 및 교과서 연관성

가. 관련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한국사	주진오 외 8인	천재교육	2014	340~347	제시문[가] 제시문[나]	○
사회	박윤진 외 5인	지학사	2014	202~215	제시문[가] 제시문[나]	○
사회	이동화 외 6인	천재교육	2014	212~227	제시문[가] 제시문[나]	○
한국사	도면희 외 7인	비상교육	2014	374~385	제시문[다]	○
사회	박윤진 외 5인	지학사	2014	44~59	제시문[다]	○

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공제욱 외	한울아카데미	2008	303, 316	제시문 [가]	○
현대사상의 스펙트럼	페리 앤더슨 /안효상, 이승우 옴김	길	2011	343~344	제시문 [나]	○
국가처럼 보기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옴김	에코리브르	2010	서론, 9장	제시문 [다]	○